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통권	제 37호
발행일	2018.12. 21
발행인	양승숙
발행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1283(학봉리91-5)
전화	042. 825. 1823
팩스	042. 825. 2461
누리집	www.cwpdi.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wpdi
편집	BOSHU
인쇄	유신당

충남인 여성IN

여성이 새로 여는 세상

2018 제37호

연구 IN

교육 人

개발원 안팎

발간사	6
개발원 사계 - 봄	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충남도정의 변화를 이끌다	12
2018년 돌아보기	14

개발원 사계 - 여름	18
긴급 점검! 충남, 여성이 살기 안전한가	20
일은 내가, 계장은 네가 충남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36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성평등 충남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42
두 여성? 두 전설! 충남여성인물사	46

개발원 사계 - 가을	52
삶의 이정표, 풀뿌리자치학교 첫 모임	54
충남 복덩이 활동가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워크샵	60
홍동마을이라는 세상 선진지 탐방	66
마을과 여성을 극으로 잇다 아산 우정공	72
크림스레이크의 빛깔을 전시하다	76

개발원사계 - 겨울	80
개발원 안팎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SNS홍보 명예기자단	8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개	90
언론에 비친 개발원	100
직원소개	106



안녕하십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남궁 영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걸어온 길을 도민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충남여성in」의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999년 개원 이래, 우리 도의 여성·가족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성평등한 도정 구현에 기여해 왔으며,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이 단순한 정책수혜의 대상이 아닌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양승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여성리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주요 도정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지난 2016년 12월 '양성평등비전 2030'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도 젠더거버넌스 체계를 시군까지 전파 및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여성 역량강화와 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은 우리 도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자, 지역의 성평등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전 직원들과 함께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도정은 물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충남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사장 남궁 영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이곳 계룡산 자락이 아름다운 자태로 풍요로움과 행복감이 가득한 지난 11월 1일에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임했습니다.

2018년 우리 연구진은 전국 최하위수준의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안전한 충남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농촌의 청년여성·예비노년세대 여성, 미취업여성의 실태 조사와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충남 성평등 강사를 배출하여 다양한 충남도민 대상의 교육활동을 저변까지 할 수 있도록 매개·촉진하고,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공연과 그림전시회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여군, 여성단체협의회원, 대학생, 시민단체 등의 성인지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기관의 수장이 부재했던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내·외풍에도 모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군 조직에서 척박했던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험과 역량을 이곳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직원들 간의 '인화단결'과 연구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정과 의회로 발로 뛰는 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의 도정 현안정책과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이름과 조직의 쇄신으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와 성과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무엇보다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8. 1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



충청남도 여성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입니다. 힘있게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올 한 해도 성평등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충남여성in」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식지가 발간되기까지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여성과 가족, 다문화, 사회보장 등 충남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또한, 시군 정책부서와 정보공유 등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여성현실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순발력 있는 대책 및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종합소식지 발간이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등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일, 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 평등 실현 등 복지 수도 충남을 만들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여성in」발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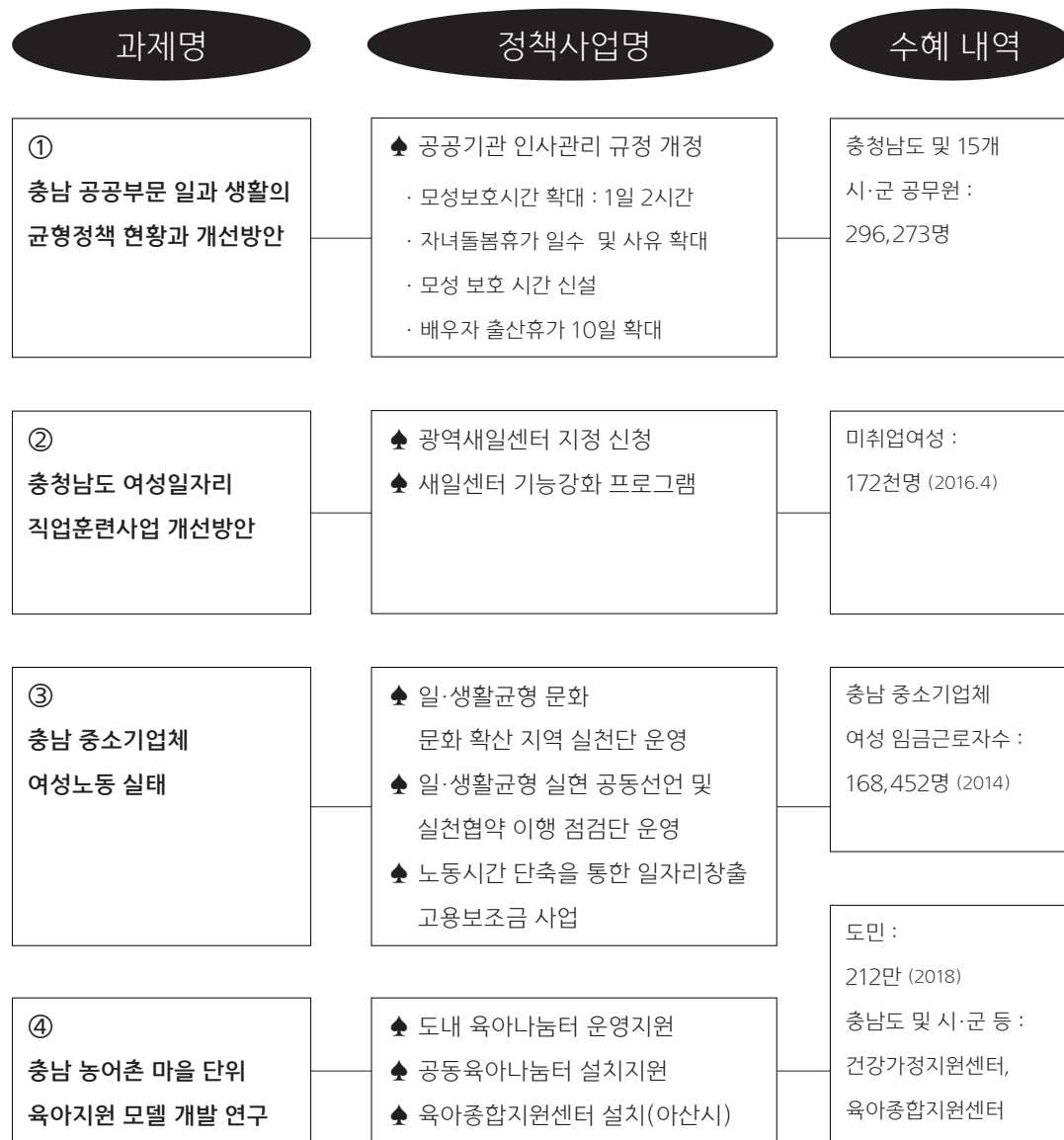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충남도정의 변화를 이끈다

2017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018년에도 개발원은 여성인권 향상과 도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년 돌아보기

연 구

전략과제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①

기본과제

충남 미취업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지역 환경 조성 방안 연구 /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충남 여성 인물사, 충남 여성 이야기 2 / 충남 농촌 청년 여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 충남 예비노년세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③

현안과제

공무원교육원 2018년 교육훈련계획 성인지 검토 / 실·국·과장 직무성과계약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검토 / 2017년 도내 시·군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분석 / 시·군 맞춤형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안) 검토 / 선진국 양성평등정책 검토 및 시사점 / 여성단체협의 회 자원봉사 실태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 검토 및 보완 / 충청남도 부서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②

정책과제

2018 충남 성인지 통계 발간 / 타 시도 젠더폭력 시책 사례 연구 / 충남 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개발연구(1) / 충남 농어업회의소 여성 참여 확대방안 연구 / 충남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여성참여 현황 및 확대 방안 /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 성장 방안 / 충남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수립」의 성인지 관점 반영 방안 / 합동평가 지표 신설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검토 / 충남 청년 여성 취업역량 강화 방안 / 충남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활성화 방안 / 충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 충남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민간영역 양성평등활동 지원체계 사례 연구

④

수탁과제

2018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 논산시 성인지통계집 발간 연구 /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충남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 /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 제4기 청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 제4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 제4기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4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⑤

공동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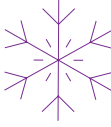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년 돌아보기

행 사

양정평생교육진흥원장사 위촉평가
 장인지요령강화과정(시민단체리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민생체 현장학습
 충남여성소모임 조직운영 컨설팅

(月)

- ①  아산문화재단의 오프라인 행사 기획과 현장평생교육원 간담회
- ②  정구원 특목키아 (피해 정구원)
- ③  시·군 여성정책 부서와의 간담회
여성단체협의회 나한정민 간담회
여민회과 여성정책연구소와의 간담회
- ④ 1차 정책회의
여성단체협의회 시·군 회장단 간담회
충남 정책네트워킹 포럼
- ⑤ 충남여성소모임 인문배움회 행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 대표포럼
충남여성정책부리 자치학과 기획과장
- ⑥  지역정구지원사업
충남여성소모임 인문배움회 행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리더포럼
장인지요령강화과정 (포럼)
충남여성정책부리 자치학과 심화과정
- ⑦  현장기관과의 네트워크(일자리분야)
충남여성정책부리 자치학과 통원과정
- ⑧  장인지요령강화과정(여성단체리더)
장인지요령강화과정(여성의원)
- ⑨  인사평가제도 컨설팅
젠더학습회(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개원 19주년 기념세미나
- ⑩  홈페이지 개편
지역으로 찾아가는 여성소모임 간담회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영향강화 교육
청년센터 리더십학급
- ⑪  홈페이지 개편
양승숙 8대 원장 취임식
현장기관과의 네트워크(다문화분야)
홈케어데이
- ⑫  2차 정책회의
지역연구지원결과 발표회
충남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나, 충남에서
풀뿌리 활동하는 김풀잎.
지역성평등지수 안전분야 13위인
충남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김풀잎 (45세)
충남 풀잎마을 거주

긴급 점검

충남, 여성이 살기에 안전한가!



PART1

젠더폭력

김영주 연구원 :



안녕하세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연구원입니다.
풀잎님의 말씀처럼 연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젠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만, 특히 우리 충남의 젠더폭력은 어떤 수준인지,
충남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얘기해봅시다.

Q.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 고 느끼는
충남 여성의 비율은 9.6%,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고
느끼는 비율은 5.8%입니다. 백 명 중 94.2%의 여성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고 느끼는 거죠.

♣ 젠더 폭력은

성별 간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위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영주 연구원 : 그렇다면 실제로 충남에는 얼마나 많은
젠더폭력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813 건
강간/유사강간/추행

200 건
카메라 등 불법촬영/성적목적 침입 등

462 건
데이트 폭력 신고

7805 건
가정폭력 신고

위 수치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수치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예요.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8,000여 건에 달합니다.

여성들은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정책이 필요해

젠더폭력



김풀잎 : 제가 느꼈던 불안감에는 이유가 있었군요. 어떻게 하면 저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을까요?

김영주 연구원 :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우선, 충청남도는 범죄안전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자본에서의 주민들의 결속력과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폭력안전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풀잎 : 폭력안전프로그램? 정책? 언뜻 들어서는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김영주 연구원 :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여성이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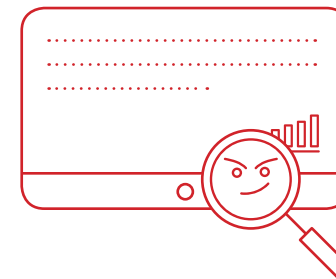


첫 번째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 ①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 ②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인구밀집 도시에 비해서 폭력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젠더폭력이 일어나도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상담사 등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조사하고,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젠더폭력 취약인구에 대한 폭력예방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큼니다.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은 주변에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안하고 표현을 안할 뿐이라고 해요. (...) 또 인식개선을 위해서 경찰서와 함께 장날에 '장터톡톡'을 운영했어요.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보니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은 전부 나쁘고 안된다고 인식하지만, 성인에 대한 성폭력 인식 수준은 아직 낮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군 성폭력상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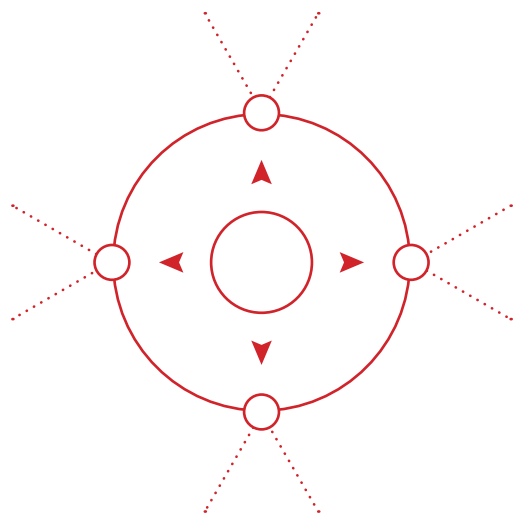


두 번째

젠더폭력 피해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젠더폭력 피해 지원 시설을 증장기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긴급피난처의 24시간 운영체제 확립과 관리 강화가 필요해요. 도내에 긴급피난처 7개소가 운영중인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상주 인력이 배치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많이 필요해요. 시·군마다 있어야 합니다. 실정을 보니 활용이 안되는 긴급피난처도 있고 열악한 곳도 있는데, 시·군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여, 권역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긴급피난처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면에서도 좋지 않고, 질적인 면도 우려돼요. 시범사업으로 컨소시엄을 해보면 어떨까요?"

2018년 8월 1일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토론회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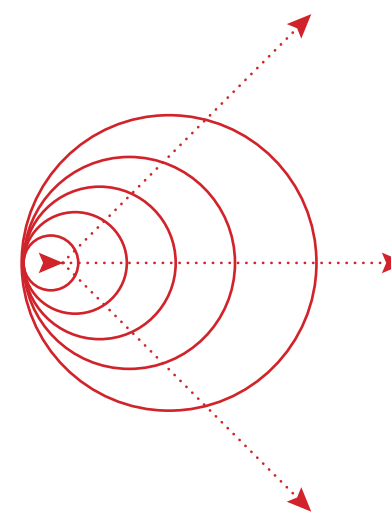


세 번째

마을 단위로 폭력안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에 좋은 선례가 있어요. '우하하 마을지기 여성·아동 안전사업'인데요. 폭력안전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간사업, 인력육성사업, 폭력예방교육, 커뮤니티 조성 등 여러유형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했어요. 무엇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3-50대 경력보유여성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의 여성활동가를 육성했다는 점, 보고서 작성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관련 부서를 개입시켜 정책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점 등 실질적으로 동네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냈지요.



"마을지기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부드함도 많이 느꼈어요. 젊은 연령층은 이 동네에 대해 애착이 별로 없었는데, 마을지기 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에서 '살아보니 괜찮네.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다'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부산여성회 활동가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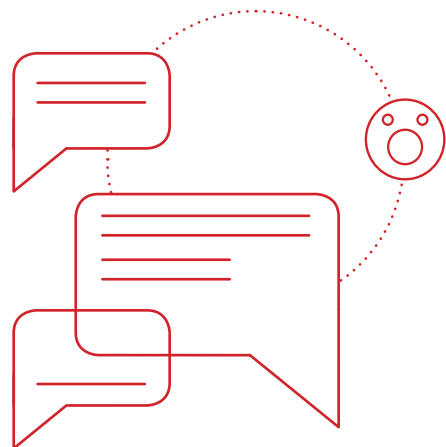
네 번째

여성, 아동 안전지역연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젠더폭력안전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거버넌스는 광역 단위에서 충남 지역 권역별 인프라 현황과 지역적 특성, 기능의 효과성 등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참여 기관들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로써 운영되어야 해요.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죠! 연대체가 활성화되면 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조금 더 폭넓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지역에서 여러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쉼터에 안 가려고 하고, 다른 지역에도 안 가려고 하는데, 쉼터 대신에 보육원 같은 다른 복지시설 쪽에 피해자 임시거주를 부탁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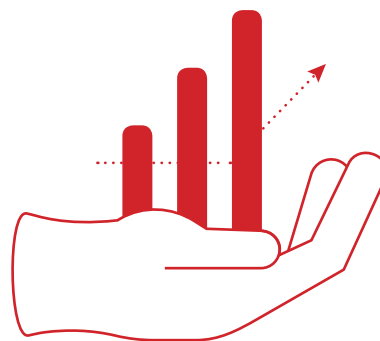
< B군 성폭력상담소 @소장 >



다섯 번째

기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매번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어 왔던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민간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해요. 활동가들이 성장한다면 지역 방법활동의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겠죠!



"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은 매우 중요해요. 10년 동안 꾸준히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뢰 형성을 오랫동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불가능하지요."

<F군 통합상담소 @소장 >

"저희 상담소는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전문가의 성장이 어려워요. 1년에 20만원씩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력에 따른 급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중간 세대 육성이 안되죠. 오랫동안 상담소를 이끌어 왔던 소장들이 몇 년 뒤면 은퇴할 시기가 되는데, 우리가 다 은퇴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우려됩니다."

<D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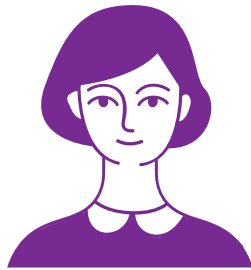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의 현장 전문인력이 도나 시·군에서 종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매달리다보면 상담소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부족해요. 관리하고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1일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토론회 中
<충청남도 성폭력상담소 @소장 >

PART2

충청남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성주류화) 현황



김풀잎 : 충남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활동해왔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말씀하신 이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저도 안심하고 충남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양지영 연구원:

잠깐!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반이 갖춰져야 해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와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남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잘 마련되어있을까요? 올해 제가 연구한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김양지영 연구원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도 및 15개 시·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어요. 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 곳은 몇몇 시·군에 불과합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례가 없는 3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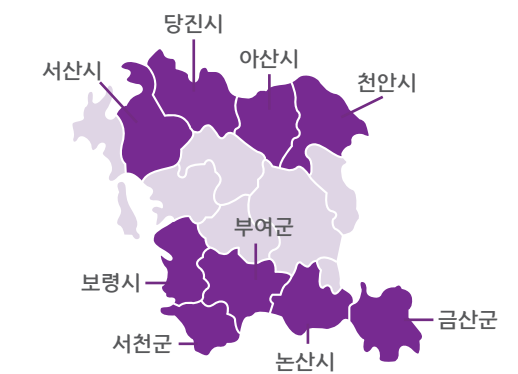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4개 시·군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6개 시·군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9개 시·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정책결정'이란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 공무원과 의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는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정책결정 및 성평등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이에요.**

**정책결정과정의 대표성은?**

- ♣ 여성의원 (V)
 - ♣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원 (V)
 -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V)
- = 여성 대표성 확보!



김양지영 연구원 : 기초의회 의원 비율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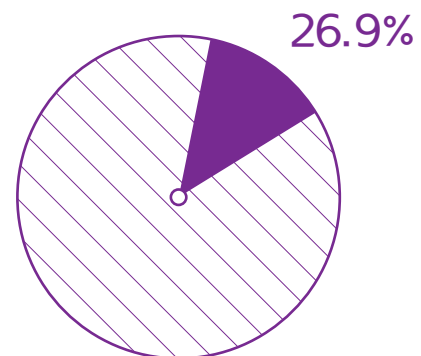
시·군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23.1퍼센트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체 14041

여성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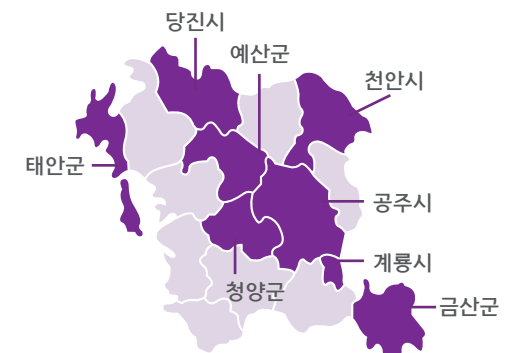
15개 시·군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20% 이하인 지역

공주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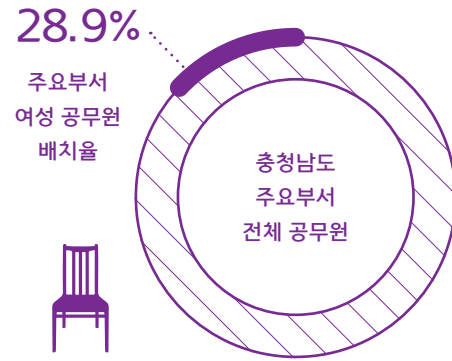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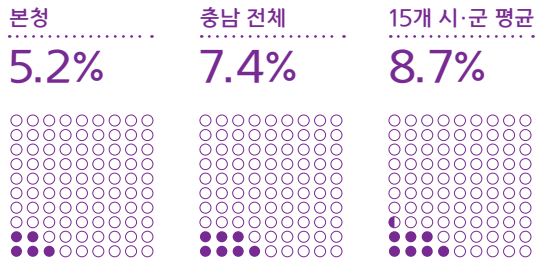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8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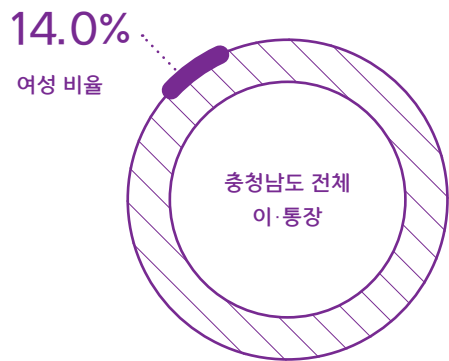


김양지영 연구원 :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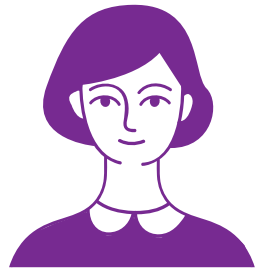
공무원의 주요부서 (기획, 인사, 예산, 감사, 실국 주무부서)에도 28.9%의 여성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얼마나 소외되어있는지 느껴시지요?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 성별 현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마을 리더로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통장 여성 비율도 14.0%에 불과해요.

김풀잎 : 그렇군요. 수치를 보니까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야겠네요.



김영주 연구원 : 우리 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여성활동가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요.



김양지영 연구원 :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해주셔야겠지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지역 환경조성 방안 연구』와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더 알아보시려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cwpdi.re.kr>)에 접속해 주세요.

일은 내가, 계장은 네가

여성어업인의 권리를 찾습니다.



1

충남 태안에서 남편과 함께 고기잡이와 맨손어업을 하는 임아무개(55)씨는 설 틈이 없다. 성수기 조업 때는 오후 4시에 배를 타고 나가 다음날 새벽 4시에 육지로 나온다. 위판장에 가 고기 무게를 달고 와도 설 수가 없다. 400평 밭일이 임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뱃일뿐 아니라 주꾸미에 바지락까지 맨손어업도 한다. 남편은 맨손어업이나 농사일을 돕진 않는다.

1 2 출처

한겨레 "뱃일·집안일 설 틈 없이 일하지만 '여자 어촌계장'은 꿈도 못 꾀"
2017년 11월 20일 최예린 기자

2

충남 당진에서 낙싯배와 굴 양식을 하는 권아무개(56)씨도 남편과 함께 바닷일을 한다. 그러나 고기잡이 설거지와 집안일은 오롯이 권씨 몫이다. 바지락·굴을 캐고 까는 일도 거의 다 '아내' 차지다. 권씨는 남편보다 고풍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여기지만 재산은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낙들은 남편 못지않게 경제 활동을 하지만 '여성 어촌계장'은 꿈도 못 꾀다. 마을에서 조금 목소리를 낸다 싶으면 "네 아내 역세다"는 말이 금세 돌아 남편부터 질색한다.

■ 여성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8. 4. 30
태안군 신진도

토론회가 열린 태안 신진도는 충남의 대표적인 어촌지역으로, 도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촌은 성평등한 삶터일까?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가시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비로소 '성 불평등'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어업인의 삶을 뜯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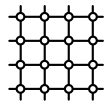
엄선희 연구위원 : 어업에서 여성 인구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 육성 거버넌스와 전문교육도 부족한데다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여성이지만 전체 어업인구 육만 명 중에 주도권을 가진 여성 경영주는 만 명뿐입니다. 여성어업인의 노동은 비공식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단체 리더 중 여성이 거의 없어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성어업인 지역별 맞춤 교육이 절실합니다.

임우연 연구위원 :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4%가 여성어업인인 자신을 '보조적 어업인'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부업과 돌봄, 가사일을 어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어업여성인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고 강도도 높습니다.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어촌계와 수협 내 여성어업인의 대표성이 낮은 현실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교육, 워크숍 참여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 기회의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 어업활동에서의 지위 인식
보조적 어업인

53.4%



2 가구소득의 50%이상 기여
여성 어업인

61.0%



3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성 향상
기술교육훈련 가장 필요

39.7%



4 어촌지역
주요 대표 단체

5%대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의 여성 어업인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어업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여성도 각종 어업인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 출처 서산시

도내 어업인 1만 9283명 중 여성 어업인 비율은 52% (1만 2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여성 어업인(6만 2701명) 중에서는 16%가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 방향

- 어업 분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증대
- 여성어업인의 역량 강화
- 여성어업인의 건강 및 안전증진(여성 어업인 쉼터) 등

토론회

**수협중앙회
권재한 센터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이정희 부회장**

조사 결과처럼 실제로 여성어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정재훈 사무관**

여성어업인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시·도의 여성어업인 전담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인력과 조직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성평등 충남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수석연구위원이 첫 발제를 맡았다.



김종철 연구원 :

지방에 거주하는 20~39세 여성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여성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충남 도내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됐다고 해도 여성들은 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합니다.

한편,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피해자 성별 현황을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89.7퍼센트가 여성이고, 강력범죄 중 성 관련 범죄 여성피해자비율은 94.4퍼센트에 달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자 검거 및 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에 45,206명이 검거되었지만 검거율은 14%에 못 미치며, 검찰의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입니다. 게다가, 신고 이후 2차 피해 가능성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여성 안전 문제'에 선도적으로 정책을 편다면,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남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개원 19주년을 맞아, '성평등 충남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 행정부서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 그리고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이다.

지정토론
채정화

토론

두 번째 발표

윤금이 아산시 여성아동정책보좌관이
충남 여성친화도시 추진사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금이 보좌관 :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산시는 15년도부터 성인지관점 학습을 공무원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17년도부터는 부서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학습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여성 관련한 사업 예산은 늘 부족하게 편성되지요. 아산시는 2015년부터 TF를 구성해서 성매매집결지인 '장미마을'을 여성,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을 시의 여러 위원회와 연결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서포터즈단에게 확인받는 것까지 목표로 삼아 진행했습니다.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을 위한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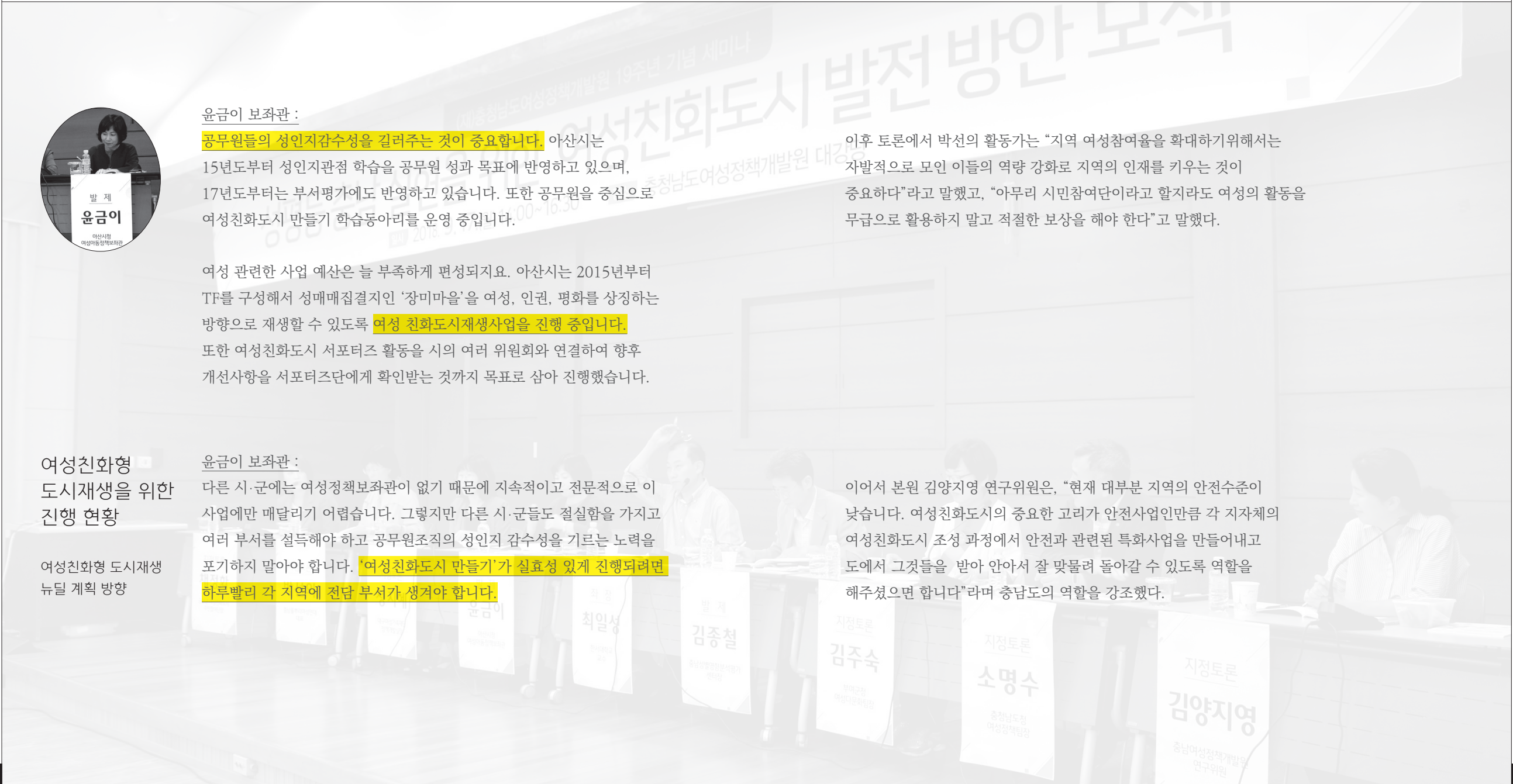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계획 방향

윤금이 보좌관 :

다른 시·군에는 여성정책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만 매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도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 부서를 설득해야 하고 공무원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하루빨리 각 지역에 전담 부서가 생겨야 합니다.**

이후 토론에서 박선의 활동가는 “지역 여성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의 역량 강화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아무리 시민참여단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활동을 무급으로 활용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본원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안전수준이 낮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고리가 안전사업만큼 각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만들어내고 도에서 그것들을 받아 안아서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충남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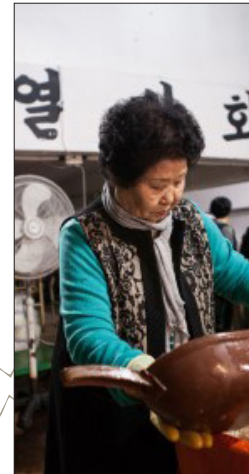
강경젓갈의 부흥, 그곳에 여성이 있다.

심은섭 선생님은 강원도 횡성에서 살다가 6.25 전쟁 직후 충북에 피난 와 결혼을 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유부남이었는데, 전쟁 중인지라 결혼 3개월 만에 군대로 가게 되었고 선생님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 익산까지 내려가게 된다.

익산에서 젓갈 장사를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난다.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던 논산 강경 포구에서 젓갈을 떼어다 팔던 심은섭 선생님 부부는 이후 강경포구에 정착해 본격적으로 젓갈 장사를 시작한다. 선생님의 가게를 시작으로 100여 개의 가게가 생겨 지금의 젓갈 타운이 형성된 것이다.

젓갈 장사를 한 지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지금의 심은섭 선생님은 강경 젓갈의 원조를 넘어 전설이 되었다. 현재는 심은섭 선생님의 딸 최순덕 선생님이 가업을 물려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에는 자전거 타고 장에 가면 눈이 와 얼음이 얼어 이렇게 수북했잖아.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 하나 와서 젓갈 달라고 하면 얼음 툭툭 깨서 주고, 어디 물이 있나 얼음 물에 손 씻고 또 젓갈 팔고 얼음 물에 손 씻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 맞고 하루를 있다가 오느라 고생도 참 많이 했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젓 한 통씩 갖고 땀기면서 팔아 식구들 입에 풀칠하던 때였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젊었으니 견뎠지."



지역성평등수준 하위인 충남에서 여성운동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럴 땐 선배님들을 보며 힘냅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현존하는 지역 여성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충남여성 인물사'를 펴냈습니다. 한 권의 책에 여러 여성들의 굵직한 삶이 담겨있답니다. 여기서는 충남의 두 전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강경젓갈의 원조 심은섭 선생님과 세모시 기능전승자 권예식 선생님이입니다.

두 여인? 두 전설!

한산하면 모시, 세모시하면?

세모시 기능 전승자
권예식



삼천 석 부자였던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권예식 선생님은 국민학교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우등생이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모시 짜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모시 짜기가 싫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모시를 했죠. 왜 이렇게 재미가 있었나 몰라. 하여튼 재밌었어. 그러다가 내가 좀 숙달이 되어가지고 모시를 제법 잘 짜니까요 그렇게 재밌대요. 모시 짜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잠도 안 와."

"저희 어머니는 친정에서 모시를 짜는 아가씨였어요. 모시는 진짜 아무나 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시를 인제 친정에서 배워서 짜시고, 외할머니도 짜셨다고 하는 것 같아."



"젓갈 집이 세 집뿐이니 장사가 겁나게 잘 됐지. 내가 이 손으로 하루 서른 드럼도 넘게 젓갈을 퍼냈으니 말야. 그때는 장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 손으로 퍼 담으니 저녁때 손을 씻으면 거칠거칠했지. 김장철이면 길가에 나가서도 팔았지만 가게 앞에도 줄을 길게 서서 젓갈을 사갔어. 그때는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팔았지.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팔 때는 그 정도 팔았어. 장사 시작하고 몇 년 안 돼 바로 집을 샀던 것 같아. 함열에 집도 몇 채 지었지."



"옛날 강경포구에 전래되던 200년 된 전통 방법으로 담는 게 강경 전통 맛깔짓인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젓갈을 골라 사다가 잘 발효해 숙성시키니 맛이 더 좋은 거지. 젓갈 중에서도 제일이 강경젓갈이라고 하잖아. 강경포구는 이제 흔적도 잘 안 남아 있지만,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강경젓갈은 지금도 전국 최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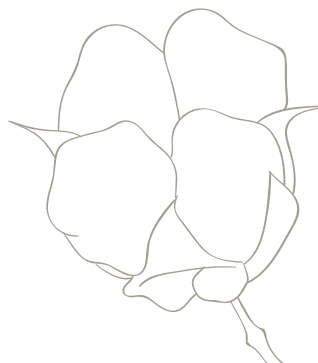
"어렸을 때 나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횡성에 살 때 동무들과 나물 캐러 많이 댕겼어. 다른 아이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달래를 캐는데, 나는 소쿠리를 놓고 일단 땅에 크게 금부터 그어놔어. '여기는 내 땅이니 못 들어와' 하고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딴 데로 가서 달래를 캐는 거야. 그때부터 난 혼자서 차분히 앉아 달래를 캐는 거지. 그래도 많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내가 금 그어놓은 땅에 못 들어오는 것 뿐이지 지들은 딴 데 가면 얼마든 달래가 있는데 뭐."





"나와서 그래도 친정집에 와서 있으면 몸이 회복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혀. 그때는 어머니 모시하는 거 조금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시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때 장에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걸 하는데, 한 장 뜨면 얼마씩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유 그러면 나 세 장만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많이도 못가져. 세장 가지고 와서 그다음 장에 해 가지고 갔다 왔더니, 그 양반이 들고서, 막 이게 처음 해온 거라고 해 가면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내가 쑥스러워서 혼났어."

"한산장에 모시 팔러 가면 누가 어떤 모시 가지고 온다는 거 모시 상인들은 다 꿰. 내가 가니까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시를 딱 받아놓고서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펴보고 둘러서보고 앉아서 보고 그렇게 봅디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그거 또 보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왜요? 모시가 맘에 안 드세요? 했더니 그냥 웃어가면서 아니라고 해 가면서 그냥 보시더라구요. 몇 차례를 그렇게 보시더니 다음부터는 내가 모시 짜갖고 가면 여기다 탁, 놓고서 흥정하지 펴 보질 않아. 근데 거기서, 내가 장악하고 싶은 거야. '권예식 모시' 하면 누구든지 알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장 나가면서 상인들을 바꿔가면서 모시를 줘보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신용이 쌓여 모시를 펴놓지 않아도 '모시 가지고 왔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됐어요. 같은 모시 울을 짚어도 탄 사람보다 1, 2만원은 더 받아."



아버지의 병환으로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생님은 시집을 갔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 형제들의 공부를 시켰지만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불평불만을 하고,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았다. 선생님은 남편 옆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친정으로 귀환했다. 친정으로 돌아와 모시 짜기를 다시 하는데 그렇게 신나고 좋았더라. 세모시 짜는 일만은 자신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던 선생님의 세모시는 일본에까지 소문이 나서 일본에서 직접 찾아와 구매하기도 했고, 세모시 하면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삶의 이정표, 풀뿌리자치학교

1

"성인지 감수성 UP!" 젠더야 안녕?

2018 여성풀뿌리자치학교 입교
2018년 5월 17일 (기본과정)

자기소개

'나를 알게 되면 좋은 점!'

"좋은 교육자료는 유튜브에도 많은데, 여러분은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는 충남 여성 활동가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성평등에 관심 있는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충남 여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입교 첫날에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대표의 '젠더감수성이란?' 강좌를 시작으로 수강생 간 아이스브레이킹, '나의 젠더박스 깨기'가 진행됐다.

"제 이름은 김진홍(가명)이고요. 군인입니다. 군에서 양성평등담당관 임무를 9개월 정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인들이 '성평등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자주 마주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20여 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에 대해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웃음)."

"안녕하세요. 김미영(가명)이고요. 보령에서 왔습니다. 저는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못하는 건 없습니다(웃음)."

"저는 전희진(가명)입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성폭력상담교육'을 맡게 됐어요. 제가 사는 곳에 이렇게 좋은 강의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다는 걸 알고 지원했죠. 공부하다보니 저 자신도 뻗속부터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장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를 알게 되면,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여지혜(가명)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여성이었어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구청에 요구했더니 공무원 분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공공기관에 요구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말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와 함께하시면 도전정신을 공유할 수 있답니다."

"저는 아산에서 왔어요. 귀촌한 지 일 년 정도 되어서, 지금은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 있고요.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둘 다 잘 되진 않아요(웃음). 도시농업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도심 사람들과 시골 사람을 연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난주부터 '경력단절 여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풀뿌리 자치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저를 알면 좋은 점은 제가 집에서 텃밭채소를 길러요. 제 입에 들어갈 것이라 모두 유기농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생강, 마늘이 땅속에 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을 겸한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이채민 연구원은 가수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뮤직비디오를 틀었다.

"뮤직비디오에 총 몇 커플이 등장하는지 맞히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끝나갈 무렵 강의실 안이 소란해졌다. "시각 장애인이랑 안내견인가?" 추측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한 커플 더!" 사회자는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증정할 선물을 꺼내왔다. 올 한해 출판계를 뒤집어놓은 <82년생 김지영>이었다. 과연, 정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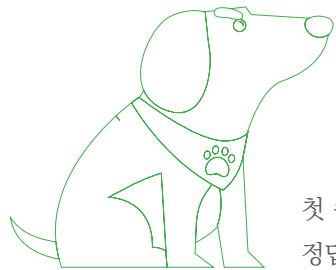
"이선희랑 이선희 팬!"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장내를 뚫고 나왔다. "우리는 보통 커플을 여자와 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과 여성일 수 있고, 남성과 남성일 수 있어요. 아직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외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 부터 인권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이선희와 팬도 커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1일차 강좌를 마무리 하면서, 성평등교육에 임하는 자세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채민 연구원 : 저는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할 때,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로 비유하거든요.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쪽쪽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더라는 거죠.



마무리 퀴즈

Q.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첫 퀴즈 때와는 다르게 금방 답이 나왔다. 강의실 곳곳에서 “편견!”이라는 정답이 제각각 들려왔다. 콩나물이 벌써 물을 흡수한 걸까?



충남 복덩이 활동가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2018 충남여성풀뿌리 자치학교
"여우(여기, 우리가)가 왔다!"

일시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7월 7일 토요일
장소 : 보령 비체펠리스

'나를 소개하는 카드' 뽑기



참가자들은 각각 네 모둠에 나누어 앉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어떤 걸 얻어가고 싶은지 카드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카드를 고르며 어떤 카드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표정도 밝아졌고 움직임도 생겼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 그림을 통한 자기소개가 이어질수록 수강생들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웃었다.

"공부를 안 하던 제가, 풀뿌리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생각하는 것도 좋았어요. 오늘 이자리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포부를 밝히는 수강생도 있었다.

"제 이름은 유성희입니다.
유리 천장을 깨부수고
성평등을 만들자는
희망을 만드는 유성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오늘 워크샵에는 풀뿌리 자치학교 1,2,3년차 선배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채민 연구원



곧이어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가 '미디어 젠더 섹슈얼리티' 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주는 선박회사에서도 일등이고 우선주는 주식에서도 일등입니다.”하며 유쾌하게 자신을 소개한 우선주 참가자는 “개발원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졌어요. 여기 오면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딸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모듬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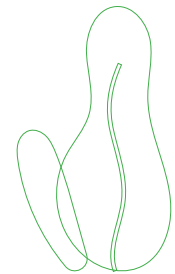
이어서 풀뿌리 개근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상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머리가 부딪치고 별 것 아닌 것으로도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저는 20년 가까이 여성운동과 미디어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나름의 해석과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란 대표는 '파쿠르를 하는 여학생'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건물과 건물을 맨손으로 뛰어다니는, 보기만 해도 짜릿함이 전해져오는 영상이었다. 여기저기서 "멋지다"는 반응도 들렸다.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영상을 보여주면, '위험하다' 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멋지다' 라고 받아들이신 걸 보면, 기존 사회 제도속에서 받아온 감수성과는 다른 트랙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매일 텔레비전에서 이런 영상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강혜란 대표는 질문을 던졌다. 체육 시간을 가장 '핫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면 지금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디어의 현실 재구성

제가 <한밤의 TV연예>를 보는데, 진행자 한 명은 소매가 긴 상의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헐벗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에어컨이 한쪽만 나오기 때문일까? 이럴 때, '원래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다.

뉴스에 성폭력 사건이 자주 보도되지만, '성별임금격차'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해요.

미디어는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여자와 여자가 텔레비전 안에서 싸울 때,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싸우는 것'을 미디어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성별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대중매체는 계속해서 틈을 벌리고 존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파해 왔어요. 이전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된다'고 전달하고, 다음 사람들이 계승해온 것이죠. 어떤 계기로든 변곡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 어떤 사안은 중요한 뉴스로 다루지만, 어떤 사안은 다루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요.

강혜란 대표는 "우리 개개인은 자기 삶에서 실질적인 젠더의식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수강생들은 '미디어는 과거에서 온 고정관념을 현재로 옮긴다'는 문장을 받아적으며, 떠오르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강연이 끝나고 수료생들은 저녁 식사를 겸해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에는 지역별로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홍동마을이라는 세상



* 출처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마을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 소모임 활동가 20여 명이 홍성 홍동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자체가 삶터이면서 활동 터이기도 한 홍동마을은 마을 어귀마다 주민들이 쌓아 올린 시간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이 마을은 매년 전국 풀뿌리 활동가들이 견학 온다. 한 해 동안 개발원과 함께 성인지 렌즈를 장착해온 여성 활동가들은 이곳 홍동마을에서 무엇을 찾았을까?

풀뿌리 공동체 현장학습

2018년 11월 09일

홍동마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풀뿌리 공동체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충남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지역간 네트워크를 위해 마련되었다.

인구 3600여 명이 사는 작지만 큰 마을. 1958년 풀무농업기술학교(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풀무생협, 풀무신협을 비롯해 농기계조합, 풀무도서조합, 재생지 포장재 제작소 등의 협동조합과 갓골 어린이집, 지역신문, 홍동밝팍도서관 등이 설립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밝맑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딱딱하게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재미있는 작당모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서관 근처에는 1인 출판사, 청년모임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생협이 있다. 걸어서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모두 가까이 있다.

쉬엄쉬엄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다. 올해로 설립 16년이 된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민들이 학습하고 자조모임을 진행한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돌아가셔서 각 지역에 여성농민센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이죠?" (웃음)
곽영란 센터장



"제가 사회를 맡는 날마다 비가 오네요." 탐방 진행을 맡은 이채민 연구원의 말처럼 하늘이 흐리고 비가 왔다. 참가자들은 팔팔 끓는 불고기 전골을 앞에 두고 인사를 나눴다. 어색함이 풀어지고 입도 풀어졌을 때쯤, 본격적인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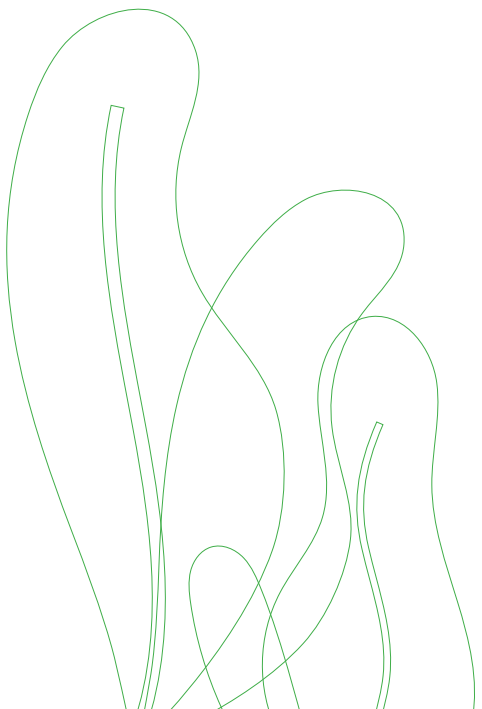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마을활력소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을활력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돕고, 아우르고, 소문내는 곳이다. 서경화 교육팀장이 '홍동마을의 역사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홍동의 오늘날은 여성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홍동마을의 핵심에 여성이 있고, 여성이 쌓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 활동가들이 홍동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견학 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은 경관이 아름답지도 않고, 볼거리가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홍동에는 다른 마을과 구별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을 교육, 유기농, 협동조합인데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며 발전해 왔습니다."

농업학교인 풀무학교가 생기면서부터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마을 청년들이 나고 자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철학으로 삼으면서, 이곳에서 소양 교육과 생활 교육을 받으며 가치관을 정립한 청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에 활력이 돌고 크고 작은 모임이 생겨났다.



참가자 소감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을카페 '마실 뜰'에 모인 참가자들은 소감을 나누었다. 오늘의 탐방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궁금하다.

"내 안의 새로운 변화를 분명히 느꼈고요. 이 마음을 간직하고 내년에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장동미 참가자

"어려서부터 '여자는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저는 불평등에 대한 반발이 커요. 딸 둘을 키우면서 '여자라서 못한다' 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저와 동년배인 다른 분들과 얘기하면, '아유~ 여자가~' 그러시는데,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여자도 사람이라는 걸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옥 참가자

"홍동마을에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비우고 왔습니다. 역시 기대만큼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새삼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차별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진희 참가자

농번기에 하루 네 시간 반을 투자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지만, 오늘의 기억은 계속해서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모임이 진행된다. 올해는 홍성의 부녀회장 서른세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광영란 센터장은 농촌 여성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시골에서 농사짓다 보면, '나' 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올해 여름, 센터에서는 '내 몸 들여다보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에 더해 잘 살고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웰다잉' 교육 등 여성 농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농촌의 유서깊은 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참가자들의 공감 어린 박수를 받았다.

"마을 안에서 이장은 대부분 남자고 부녀회장은 여자예요. 이장은 면사무소에서 대접을 받고 월급도 받지만, 부녀회장이 하는 일들은 '봉사' 로 생각합니다. 김장철엔 김장하고 마을 행사마다 따라다녀야 하지만 '식모' 취급을 받죠.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부녀회장에게도 월급 주고, 마을회관 관리하는 등 재량권을 주라고요."



센터장은 "여성들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여성이 얘기를 해야 바뀐다"라며 말을 맺었다. 동그렇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가자들은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술렁됐고, 질문을 쏟아냈다.

마을과 여성을 극으로 잇다

- 송악해유마을



송악마을공간 해유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공기로 알 수 있었다. 오 분만 밖에 있어도 손끝과 발끝이 시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날이었지만, 관객들과 배우들은 체온을 잊은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극이 상연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김치부침개와 꼬치어묵, 막걸리 등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음식을 팔았다.

2018 송악마을 예술제 일환으로 송악마을극단 우정공이 <그 여자의 소설>이라는 극을 올렸다. 본원의 2018 충남여성 소모임성장프로젝트로 지원되었다.

<그 여자의 소설>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가부장적인 가정과 사회 구조 속에서 일상의 고난을 견디는 여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관객은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극중 인물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인물이 괴로워하면 덩달아 침통해졌다. <그 여자의 소설>은 여성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극이 끝나고, 송악동네 사람들 박민영 이사장은 감동이 가시지 않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우정공 단원들은 전문 연기자들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면서 연극을 만들고 극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한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몽클하게 그려내는 극을 보니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은 앞으로도 마을에서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송악마을 극단 우정공은 2014년 10월에 창단했다. <홍도야 울지마라. 홍도 뚝!!!>,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낭독공연-충청도의 힘!>, <그 여자의 소설> 등 매년 극을 올리고 있다.

극단 사람들

송악동네 사람들
박민영 이사장



박민영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 사람들은 송악마을에서 재미난 일을 꾸미고 문화를 만듭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할 것을 찾아가고 있고요. 일 년에 세 번 마을 축제처럼 '놀장'을 진행해요.

연극제는 올해로 오 년째 해오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을문화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즐겨주시고, 극단 우정공을 많이들 기억해주세요. 단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모인 곳이니만큼, 연극 동아리처럼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소설>은 언뜻 옛날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날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요. 오늘 공연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관객분들이 극의 의미도 알아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저도 뿌듯합니다.



배우 강재연 / 귀분네 역

저는 극단에 들어온 지 두 달 됐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합류했지요. 걸음걸이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연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하자, 내가 행복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어제는 사위랑 딸들이 왔는데 나 자신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건 내 삶이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찾은 게 너무 좋아요. 연습 초반에는 '나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끝날 땐 아쉬워요. 뭔가가 남아요' 그 말이 딱 맞네요.



배우 정연옥 / 작은 할머니 역

저는 극의 주인공인 작은 할머니를 맡았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극중에서 시집을 가서 이런저런 구박도 많이 받으면서 산 인물이에요. 제가 처음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상상이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뭘 하면 좋을까, 텔런트나 영화배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는 간접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배우를 해보면 좋겠다, 하던 차에 동네에 극단이 생긴 거예요. 연극이 끝난 지금은 아쉬움이 남아요.

크림슨레이크의 빛깔을 전시하다

천안 여성주의 그림 소모임 '크림슨레이크'



10월, 천안에서 여성주의 그림 소모임 크림슨레이크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림 앞에서 오롯이 혼자였을 화가는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완성했을까. 여성주의 시각으로 그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 본원에서 도내 여성 풀뿌리 소모임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8년 충남 여성 풀뿌리소모임 성장프로젝트」가 결실을 거두었다.
천안 여성소모임 '크림슨레이크'는 봄여름 동안 완성한 그림들을 내포 도청 갤러리에 일주일 간 전시했다.

♣ 크림슨레이크

크림슨(crimson)은 밝고 짙은 빨강에 약간의 파란 색이 섞여 보랏빛이 도는 색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빨강과 장미색 사이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빨강을 크림슨레이크라고 부른다.

♣ 크림슨레이크 팀 소개

크림슨레이크는 햇빛을 띤 짙은 빨간색이다. 현재는 화학적 합성을 통해 색을 만들지만, 본래는 암컷 깍지벌레 수만 마리 정도를 갈아야만 나오는 색소였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크림슨레이크라는 색이 얼마나 많은 색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색인지 깨달았으며,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과 비슷한 성향의 색이라는 생각으로 팀 이름을 만들었다.

<자유를 향한 달림>

홍희정 116.8*91.0cm Oil on Canvas

작품 설명

사회적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성임에도, 어떤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나 잘하라' 말하는 무뚝뚝한 남편과 산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모른다. 우리 여자들도 그림 속 달리는 말처럼 어딘가에 갇혀있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나의 길을 찾아 나아가자.



<Suffragette (서프러제트)>

양승빈 72.7*53.0cm Oil on Canvas

작품 설명

'서프러제트'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활동은 1918년 2월,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때 참정권은 30세 이상의 여성들 가운데 재산이 있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에게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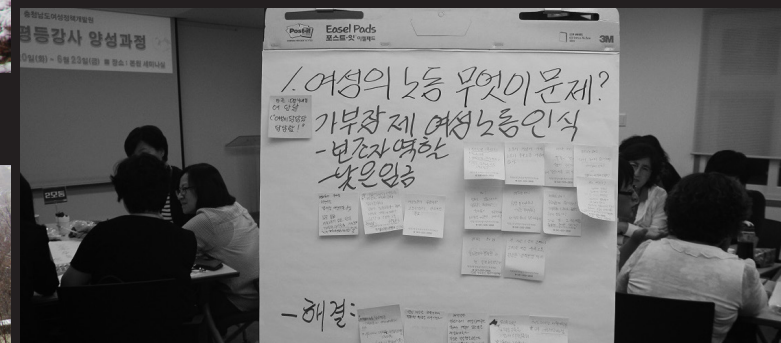
192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참정권운동에 관한 영화인 <서프러제트>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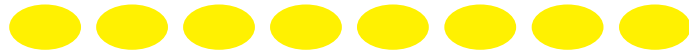
"저는 크림스레이크 팀의 그림 지도자로 활동 중인 백지은입니다. 크림스레이크 팀원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번에 같이 전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일곱 분이에요. 직장인, 가정주부, 고등학생 등 다양한 팀원분들이 계세요. 그림을 매개로 자기표현을 하시면서 속 시원해 하시고, 스트레스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크림스레이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여성주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려고 합니다."

백지은 서양화 화가, 크림스레이크 그림지도자





개발원 안팎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첫 모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기자단 출범식
2018년 5월 24일

올 한 해 본원 소식을 발 빠르게 알려온 이들이 있다. 2018 SNS명예기자단 3기로 선발된 열다섯 명의 기자들이다. 이들은 각자 SNS를 통해 본원 소식을 알리고, 각 지역에서 빅마우스로 활약하며 충남도민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개발원의 믿음직한 파트너, SNS기자단을 만나보자.

기자들은 위촉장을 받고, 한해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투표를 통해 기자단 단장을 뽑았다. 구본중 단장이 한해 활동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어서 같이교육 연구소 황금명륜 소장의 “젠더렌즈로 세상을 보자!” 강의를 함께 들으며, 미디어 콘텐츠를 성인지관점으로 다시 보는 훈련을 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있는데 누가 가운데 선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나요? 오히려 기울기를 유지하는 거죠. 홍보 기자단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장을 기울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싸웁시다. 더 가열차게 싸웁시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맞추기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장**



번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 홍보기자단 지역모임

부여,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등 지역에서 모여 지역특화 축제 탐방을 비롯하여 여성친화사업 탐방, 의원 및 지역활동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부여군 연꽃축제

홍성지역 모임, 교육감님 접견



보령시 박물관



만남 기자 모임(유.금.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명예기자단

명예기자단은 개발원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지역의 성평등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여 홍보합니다.



서산시 코외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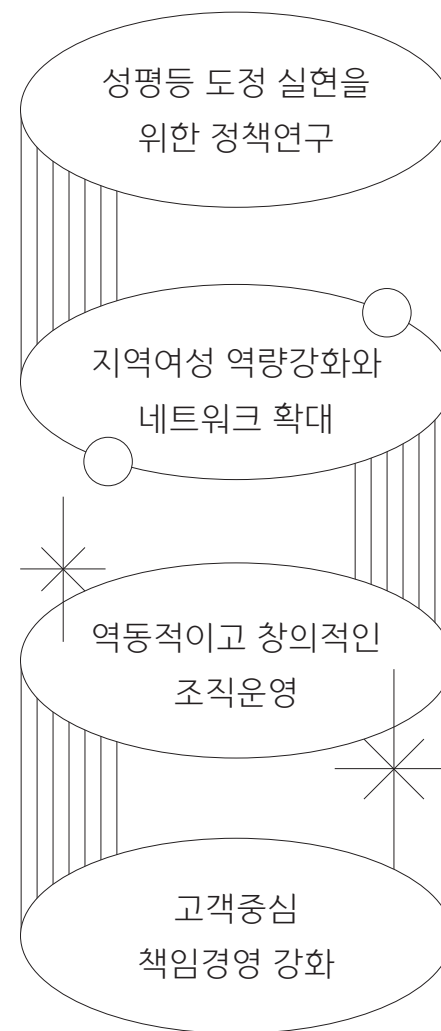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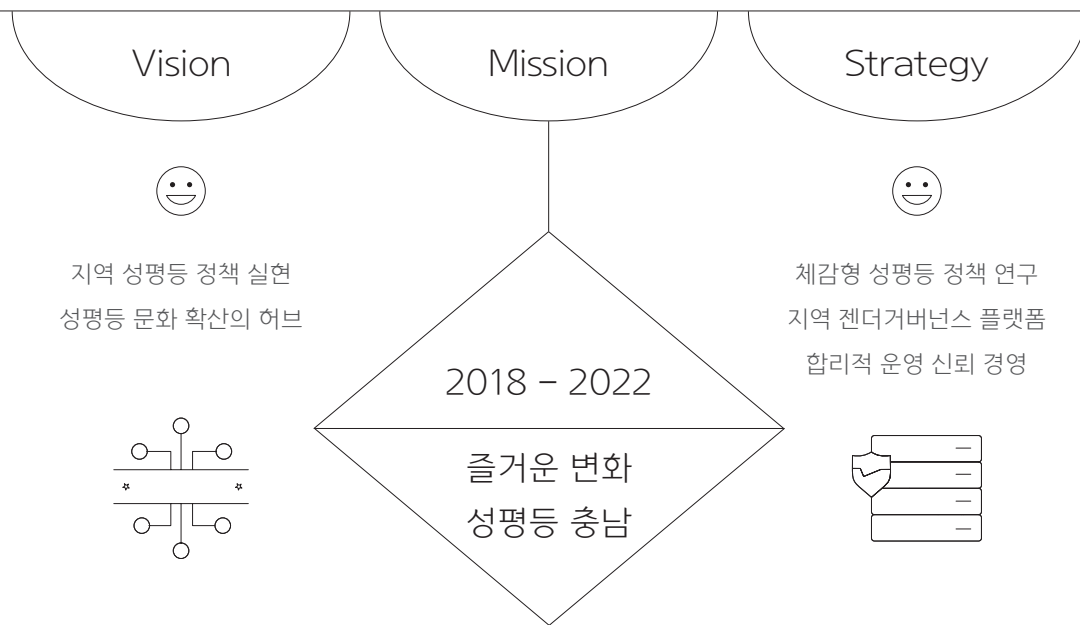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개발원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충남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여성들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원은 충남의 양성평등 정책이 잘 구현되도록 도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여성들과 소통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모든 연구진과 구성원들은 성평등 충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길에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발원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성평등은 충남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 도민이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요소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비전&미션&전략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



-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체감형 연구주제와 과정 실현
- 도, 시·군의 양성평등 정책개발과 지원 강화
-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 환류도 제고
-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로 질적 향상
- 시군 풀뿌리 여성자원 발굴과 육성
- 여성단체, 시민조직들과 협업을 통한 성인지적 여성리더 양성
- 다양한 성평등 전문인력 교육
- 시·군 여성인재들 네트워킹 사업과 여성인재 DB구축
- 충남 젠더 거버넌스 적극 참여로 효과 극대화
- 시·군 젠더 거버넌스 토대 지원 사업
- 정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조직 강화
- 20주년 기념사업과 향후 공간이전 계획과 전망 수립
- 온·오프라인 홍보강화로 도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
- 기획조정실 기능강화로 업무수행 합리화와 조직 통합력 확보
-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에 기초한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
- 소통을 통한 상호지지의 조직문화 구현

사업소개

연구

여성·가족분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 여성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분야

영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필요한 정책연구와 사회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충남 >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분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충남도내 이주민의 인권 증진,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다문화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수행하여 <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충남 >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김양지영

기본과제

- 01 충남 미취업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안수영**
- 02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지역 환경 조성 방안 연구 **김영주**
- 03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임우연**
- 04 충남 여성 인물사, 충남 여성 이야기 2 **김종철**
- 05 충남 농촌 청년 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태희원**
- 06 충남 예비노년세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은희**

정책과제

- 01 2018 충남 성인지 통계 **김영주**
- 02 타 시도 젠더폭력 시책 사례 연구 **김영주**
- 03 충남 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개발연구(1) **조윤진**
- 04 충남 농업협회의소 여성 참여 확대방안 연구 **김종철**
- 05 충남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여성참여 현황 및 확대 방안 **김종철**
- 06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 성장 방안 **안수영**
- 07 충남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안수영**
- 08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수립」의 성인지 관점 반영 방안 **임우연**
- 09 합동평가 지표 신설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검토 **임우연**
- 10 충남 청년 여성 취업역량 강화 방안 **김양지영**
- 11 충남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활성화 방안 **김양지영**
- 12 충남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최은희**
- 13 충남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최은희**
- 14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태희원**
- 15 민간영역 양성평등활동 지원체계 사례 연구 **태희원**

현안과제

- 01 공무원교육원 2018년 교육훈련계획 성인지 검토 **이경하**
- 02 실·국·과장 직무성과계약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검토 **공동**
- 03 2017년 도내 시·군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분석 **안수영**
- 04 시·군 맞춤형 기초센터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컨설팅 **태희원**
- 05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안) 검토 **김종철**
- 06 선진국 양성평등정책 검토 및 시사점 **김종철**
- 07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 실태조사 **김종철**
- 08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 검토 및 보완 **김종철**
- 09 충청남도 부서별 성희롱 실태조사 **김영주, 우복남**

수탁과제

- 01 2018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김종철 외**
- 02 논산시 성인지통계집 발간 연구 **태희원 외**
- 03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김양지영 외**
- 04 충남형 가족정책 수립 계획 **김영주 외**
- 05 충남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 **김영주 외**
- 06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김종철 외**
- 07 제4기 청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안수영 외**
- 08 제4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최은희 외**
- 09 제4기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송미영 외**
- 10 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최은희 외**
- 11 제4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태희원 외**

공동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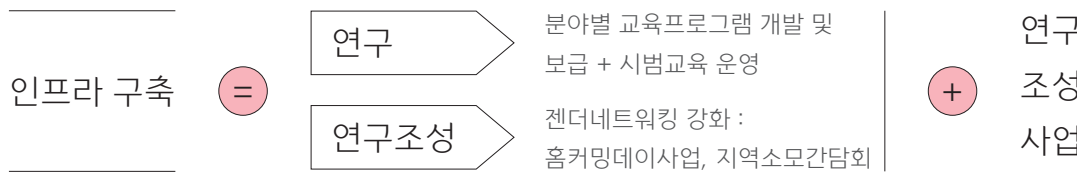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최은희**

사업소개

교육 · 사업



- 1 의사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 2 성주류화제도 실행기반 강화
- 3 여성풀부리 소모임 활성화
- 4 성평등교육 확산 인프라 구축



교육사업 **연구구성사업**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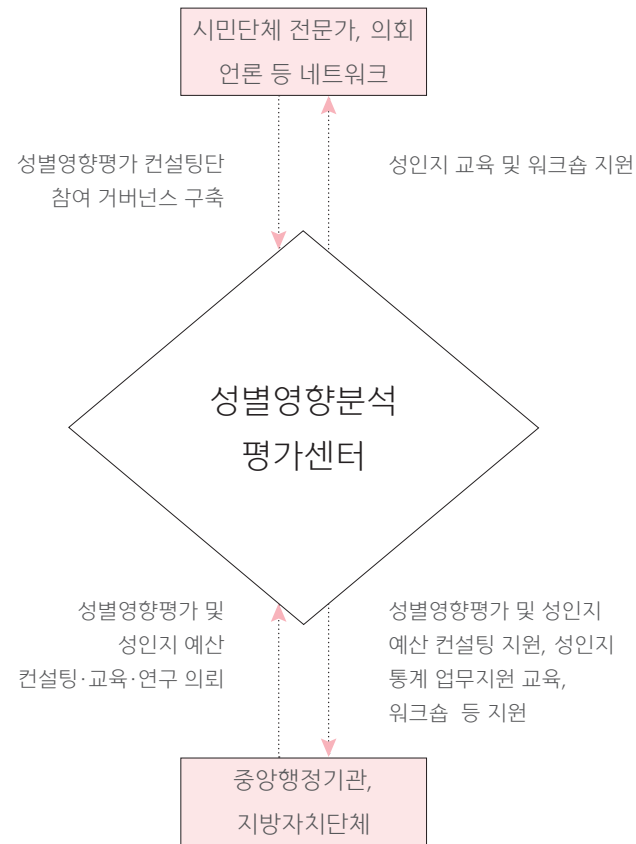
- 성평등한 민주주의 확대**
- 여성 풀부리 자치학교(기본)
 - 여성 풀부리 자치학교(심화)
 - 여성 풀부리 자치학교(통합)
 - 청년 젠더리더십 학교
- 지역 여성소모임 활성화**
- 충남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 충남 여성소모임 조직운영 컨설팅
 - 충남 여성 풀부리 공동체 현장학습
- 성평등 전문가 육성**
- 성인지역량강화과정
 - 충남 성평등 강사 보수교육
 - 충남교사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기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위촉평가과정
- 성평등 정책업무 역량강화**
- 연구원 콜로키움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역량강화 교육

-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 CWPDI 젠더포럼 (미래 가족변화와 대응 방안)
- 홈 커밍데이 사업
- 지역으로 찾아가는 여성소모임 간담회
- 다문화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연구원 워크숍
- 개원 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원 풀부리여성 지원 사업 성과분석
- 충남 지역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사업기획위원회 운영

-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와 교류 협력
- 도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운영
- 시군 여성정책부서 정책간담회
- 정책현장기관 네트워크 운영
- 일자리네트워크와의 포럼 개최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 충남인 여성인 발간
- CWPDI 젠더브리프 발간
- 연구과제 브리프 발간
- CWPDI 홈페이지 운영
- CWPDI 뉴스레터 발간
- SNS 홍보 및 관리
-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 지역연구 지원 공모전
- 홍보자문단 구성 운영
- 홍보물 제작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충남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다양한 집단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도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08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 정책분석 평가 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어, 충청남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개선 도출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성인지 의식 함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교육을 운영하며,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 소개

컨설팅

- 충청남도 및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 충청남도 및 시·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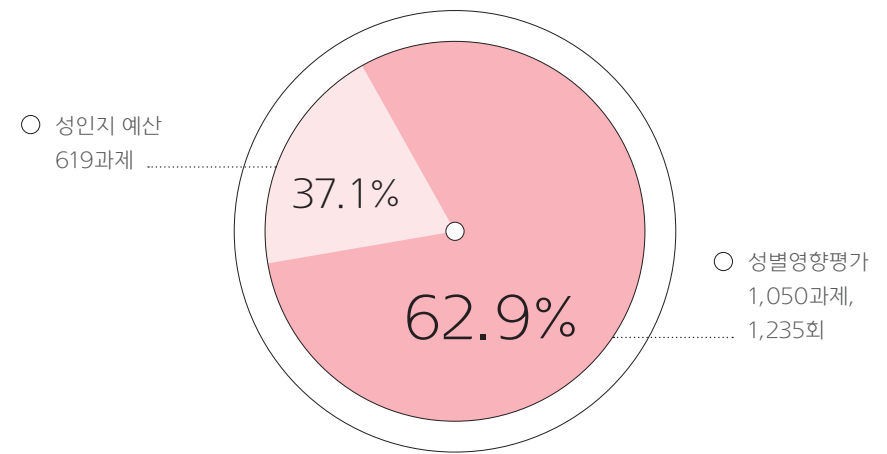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성인지 교육
- 컨설턴트 양성교육

연구

- 주요 정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 성인지통계 발간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

2018년 컨설팅 실적

성별영향평가 1,050건, 성인지예산 619건으로 전체 1,669건 1,854회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 실적 (2018)

2018년 성별영향평가 부문별/방법별 컨설팅 지원 실적

(단위 : 건, 회)

대상구분 (대상과제수)	컨설팅 부문별 지원					컨설팅 방법별 지원	
	합계 (회)	대상과제 선정	분석 평가서 작성	검토의견	기타 종합결과보고서 검토 등	대면	서면 GIA시스템, 메일, 전화 등
전체	1,234	411	429	387	7	197	1,037
법령	287	0	45	242	0	0	287
계획	8	0	5	3	0	0	8
사업	934	411	379	142	2	197	737
기관	5	0	0	0	5	0	5

언론에 비친 개발원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 그리고 '여성'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 03.16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여성 담당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시군 여성 정책담당부서와 정책간담회

2018. 03. 21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15개 시군 여성정책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MBS] 이준희 기자



미래 가족 변화와 대응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포럼 개최

2018. 06. 26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남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 가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혈연을 넘어선 비친족가구의 증가, 한부모·조손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 확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유연성 증대 등이다.

[페어뉴스] 이동근 기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6월 25일 미래 가족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젠더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육군본부와 공동 워크숍 개최

2018. 07. 0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2일 양성평등주년을 맞이하여 충남지역 여군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60여명의 여군이 참석한 가운데 '여군의 성인지력 및 리더십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충남신문] 윤광희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청년젠더 리더십학교' 열어

2018. 10. 3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0월 31일 공주대학교에서 '2018년 청년 젠더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젠더감수성 교육과 대학생들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이해를 주요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연애'를 젠더관점으로 조명해 보았으며, 오후에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에 대해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매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의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요즘 젠더 이슈들이 단순히 여·남의 대결로 치닫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오늘 교육이 여·남의 대결이 아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최근 성평등, 젠더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좋은 교육의 기회였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의원 성인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018. 08. 2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28일 세미나실에서 '2018 여성의원 성인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5개 시·군 광역 기초의원 여성의원들의 성인지적 역량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의원의 역할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2018.09.1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9월 17일(월) 대강당에서 의원, 여성계 인사,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충남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역점과제이기도 한 여성친화도시 지원이 충남의 성평등 수준 제고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신임 원장에 양승숙 취임

2018. 11. 0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사장 남궁영)은 양승숙 제8대 원장의 취임식을 여성계 인사와 연구원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일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금번 양승숙 원장의 취임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민선 7기 도정의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 신임원장은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직원들과의 인화단결을 우선으로 운영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복지문제 등 현안사업들의 정책을 비롯하여 우리 충남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극껏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 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시민단체활동가 성인지역량강화 교육 실시

2018. 11. 2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은 11일 천안 NGO센터 교류실에서 ‘마을을 바꾸는 다른 목소리’라는 주제로 시민단체활동가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Me too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백희정 공동대표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개최

2018. 11. 2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에서 수탁 운영 중인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1월 28일(목)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및 시·군공무원과 의원, 여성정책 전문가,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류화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포럼(이하, 성주류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성주류화 포럼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실행단계에서의 추진방법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당진신문]

직원 소개



구분	이름	직위	전공	업무
기획조정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실장)	사회복지학	연구, 교육, 행정팀 업무총괄, 사회복지정책
	이경하	연구원	사회학	대외협력, 홍보사업
	김기석	행정원	-	경영평가 관련업무, 사업실적 관리
	호지영	연구조교	-	업무지원
연구팀	안수영	연구위원 (팀장)	사회학	일자리연구, 여성인적자원개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사회학	여성, 가족정책, 여성인권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교육공학	여성친화도시
	최은희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가족·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
	태희원	연구위원	여성학	농촌여성, 거버넌스
	김양지영	연구위원	여성학	여성노동연구
교육·사업팀	김미란	연구조교	-	연구지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팀장)	언어문화학	업무총괄, 사업기획 및 운영
	조윤진	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육·연구구성사업
	이채민	연구원	사회학	교육·연구구성사업
	여선영	연구조교	-	연구 및 교육사업 지원

구분	이름	직위	전공	업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센터장)	교육공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
	임현정	전담연구원	사회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컨설턴트 관리, 포럼개최 및 교육지원

구분	이름	직위	업무
행정팀	신재리	행정팀장	행정팀 업무기획·검토조정, 인사, 이사회
	김매화	행정원	일반회계 예산 결산, 기금운영, 세입세출외운영
	박선미	행정원	계약, 용역사업, 복지제도, 직원교육, 홈페이지관리
	최영락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차량관리
	이원우	행정원	시설 및 환경정비, 소방훈련, 전산.개인정보관리
	김진순	행정원	환경관리
	호광자	행정원	식당 운영 및 관리

